“20년 자비행, 함께여서 즐거웠다”



2015년 12월 1일 미얀마 빤따노 오보중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부산 비구니 화엄회 봉사단의 모습. 화엄회는 학교 교실 건립 후원에 동참했다.


부산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이 부산대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비구니 봉사단 부산화엄회가 봉축을 맞아 병원 환우들에게 연꽃등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였다.

‘부산화엄회’ B1면에서 계속

재무를 맡고 있는 탄준 스님은 “역대 모든 회장 스님과 선배 스님들의 보시 봉사행에 대한 솔선수범 정신이 있었기에 20년 동안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불협화음없이 모임이 지속돼 온 것 같다”며 “창립 당시 선배 회원 스님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는 그 분들의 감동스런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여법하게 우리 화엄회가 건재한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부산대 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성봉 스님도 “부산대 법당과 인연이 된지 이제 만 3년째 됩니다. 화엄회 회원 스님들께서 하시던 활동을 이어받아 불법을 환우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 쾌차 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 병원 환자분들중에는 신심있는 불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불교계 신문과 잡지, 사경집 등을 전해 드리죠. 어떤 환자분은 무비 스님의 〈당신은 부처님〉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자신이 가끔씩 진료를 가는 서울 아산병원 법당에 법보시를 100권 하기도 했죠.” 현재의 병원 법당 포교 상황을 설명하는 성봉 스님의 얼굴에는 보람을 나타내는 환한 미소가 흘렀다. 성봉 스님의 병원 법당 포교 스토리는 계속 이어진다. “가끔씩 염주도 환우들에게 힘내라고 전달하는데, 한 번은 병원 약국서 염주를 차고 밝게 인사하던 환자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작은 염주 하나도 아픈 환우들에겐 큰 의지처가 되는 구나 느꼈죠. 이 모든 건 우리 화엄회 스님들이 20년 전부터 이어 온 활동이 씨앗이 되어 큰 결실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는 화엄의 꽃들입니다”라고 화엄회를 평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화엄회 스님들의 자비행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2013년부터는 미얀마에 학교 짓는 교육 후원 불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화엄회는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이면 지구촌 어디라도 구호의 손길을 펼치려 한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차고 넘치는 화엄세계의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영남 지역의 모범 승가 단체라는 칭찬이 왜 지역불교계에서 입소문으로 불자들에게 잔잔하게 전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현 회장 상화 스님은 2015년 12월 1일 미얀마 학교 교실 건립 완공식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단 4명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미얀마의 교육 현실은 열악하다. 긴 이동거리와 열악한 가정형편 탓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상업 중심지인 양곤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에야와디주의 한 오지마을 빤따노. 이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경사가 있는 날이었다. 부산화엄회가 이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교실 건물 2채를 지어준 날이기 때문이다. 온 마을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화엄회는 빤따노 지역의 바잉지따이꽁 고등학교에 교실 4칸의 건물을 짓는 데 후원했다. 스텝이 탄 차량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학교 정문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학생들이 일행을 둘러싼 가운데, 스님이 테이프를 자르자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더불어 학생들과 마을주민의 기쁨에 찬 박수소리도 울려 퍼졌다.

미얀마 교육불사에 동참

2013년부터 해외 구호에 관심
미얀마 교육 환경 현실 열악해
더프라미스 통해 후원금 전달
빤따노 지역 학교 교실 불사도
화장실 수리, 책 · 걸상 등 지원

회장 상화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모두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던 중에 더프라미스와 인연이 돼서 교육 불사에 동참하고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화엄회를 대표해 당시 회장인 현수 스님도 빤따노 지역 오보중학교에 교실 3칸과 야외 화장실, 책걸상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화엄회 스님들이 전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미얀마 아이들에게 배움과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채워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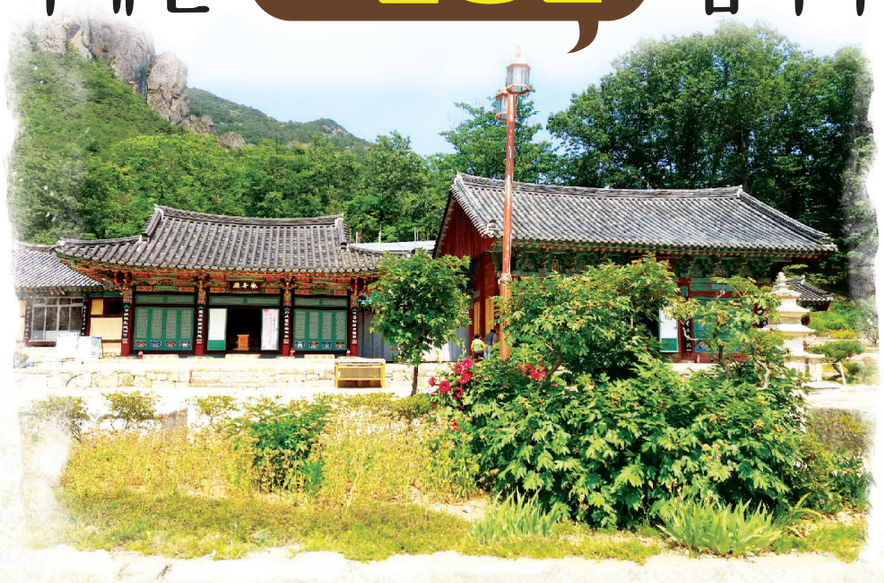
부산화엄회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지만, 매달 각 사찰의 행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사찰 운영과 포교에도 유익하다는 게 회원 스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또한 회장 상화 스님과 어른 스님들이 가끔씩 전국비구니회와 종단 소식도 전해줘 불교계를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자세 등도 조언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큰 도움이 된다고 회원 스님들은 환희심을 내비친다.

마지막으로 화엄회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대중이 함께 살면 대중의 힘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소임을 살면 선방 가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 화엄회 회원 선후배 스님들을 뵈면 다시 발심 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원 스님의 사찰에 축하 할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함께 동참해 서로 장엄이 되고,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땐 위로와 격려로 용기 나게 하는 도반의 정이 듬뿍 넘쳐 나는게 바로 우리 화엄회입니다”라고.

창립 20년 맞은 부산화엄회 활동

1999년 4월 부산대 병원 법당 후원 및 봉사 시작
2000년 5월 삼척시 화재민 위문 및 후원금 전달
2009년 1월 부산대 양산병원 법당 점안식 후원
2009년 3월 부산대병원 법당 부처님 개금 후원
2009년 8월 53사단 자운사 군법당 단청불사 후원
2011년 2월 연무대 법당 불사 후원
2011년 11월 불우 환자 지원금 전달
2012년 7월 영은사 화재 위로금 전달
2013년 5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지원금 전달
2014년 2월 미얀마 중.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4년 2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4년 7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5년 5월 네팔 지진 후원금 지원
2015년 11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학용품 지원
2017년 4월 군법당 누수 공사 후원
2017년 10월 포항지진 피해 성금 전달
2018년 12월 승보공양 대법회 공양물 후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